



## 이라크 아르빌 특별연수를 마치고

글: 강미경(결핵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연구원 국제협력실은 전후 결핵 등 전염병의 발생과 영유아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 및 도혹지역(쿠르디스탄) 결핵관리 의사에 대한 결핵관리 특별연수를 2006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이라크 아르빌(우리군 파병지역)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였으며 동 지역의 결핵관리체계 복구를 위한 결핵기초 이론 및 선진화된 결핵정보감시체계 견학, 환자관리실습 등의 국가결핵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였다.

배길한 원장 등 연구원 내부강사진 외에 일본결핵연구원장 Dr. N. Ishikawa와 세계보건기구의 Dr. Martin Bosman 등 국제 결핵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석하여 국제과정으로서의 전문성과 국제협력의 의미를 더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전염병관리팀장의 전염병관리 등 외부강의가 곁들여졌다.

부산시 3개 보건소에서의 환자관리 실습과 인터넷을 이용한 결핵환자정보감시체계를 견학한 이라크 연수생들은 다른 외국인 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감탄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고 연구원의

결핵신환자에 대한 약제 감수성검사체제와 마산결핵병원의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실태 등을 살펴보고 자국 결핵관리에 배양검사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연수과정의 후반부에 소개된 세브란스병원의 과학적인 환자진료시스템과 공항이나 호텔의 로비를 연상케 하는 호화로운 입원실을 보며 할 말을 잊은 이들은 입원실 욕실에서 사진을 찍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첫 만남에서 느껴지던 긴장과 경계의 눈빛, 아르빌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라크와는 전혀 다른 곳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석유만을 떠올리게 했던 이들 이라키들은 과정후반에 이르러 “생선회는 제발 그만, 맛이 없어도 좋으니 할랄(예식을 행한 후 도살한 소 또는 닭고기)은 없느냐” 심지어 “한국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리는 가족을 두고 왔는데 돌아가기 어렵다” 라고 속내를 표현하는 등 매우 솔직하고 다정다감한 친한인으로 변해 있었다.

석유는 신이 자신들에게 내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고 원망 아닌 원망을 토론했면서도 오늘 우리의 배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들의 기품 있는 행동과 순수함을 담은 눈물을 보면서 이번 과정이 결핵관리연수 이상의, 국가의 신임도 제고를 위한 교류이상의,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인류애를 국경과 분쟁, 피부색과 나이를 구분치 않고 가슴으로 느끼고 전달하는, 보다 소중한 그 무엇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한국을 사랑한다며 이 통화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전화와 함께 경유지인 두바이공항을 수월하게 통과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던 그들은 결국 두바이공항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해서 전원 모두 아르빌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I miss you and Korea so~ooooooooo much” 라는 인사말과 함께.

신이 그들에게 내린 행운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어 평안해 지는 날이 그들 생전에 왔으면 하는 바람과 오늘 우리의 노력이 지구상의 결핵퇴치를 넘어서 “For the better world”(한국국제협력단 모토)를 실현하는 중심을 이루었으면 하는 벅찬 기대를 품어본다.

이 모두가 전 인류의 공통숙제인 결핵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본원의 결핵관리 국제연수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연수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해 온 한국국제협력단과 연수기관에 사소한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과정을 진행시킨 조한결 선생님, 자신의 몸 상해가면서도 연수생들의 안위를 돌보느라 지칠 사이도 없었던 박미숙 님, 뛰어난 재치와 전문가적인 기지로 연수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이드 김금순 님, 이분들 모두의 정성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조화였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